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조영현 연구위원, 김세중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가계의 부채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부담이 해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해지율 상승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임. 가계의 부채부담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의 지속적인 해지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계약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해지환급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7년 4/4분기와 2018년 1/4분기 개인보험 해지환급금(효력상실 포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1%, 11.5% 증가하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개인의 부채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DSR 또한 2014년 11.3%를 기록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하반기에는 2010년 수준인 12.1%까지 상승함

■ 이에 따라 DSR이 개인보험 종목별 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해지율(이하 '신해지율') 지표를 고안함

- 해지환급금은 보험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해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계약금액을 계산한 해지율¹⁾ 지표가 주로 활용됨
- 그러나 전통적인 해지율은 분모인 보유계약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해지환급금을 당해 연도를 포함한 과거 6년간 수입보험료로 나눈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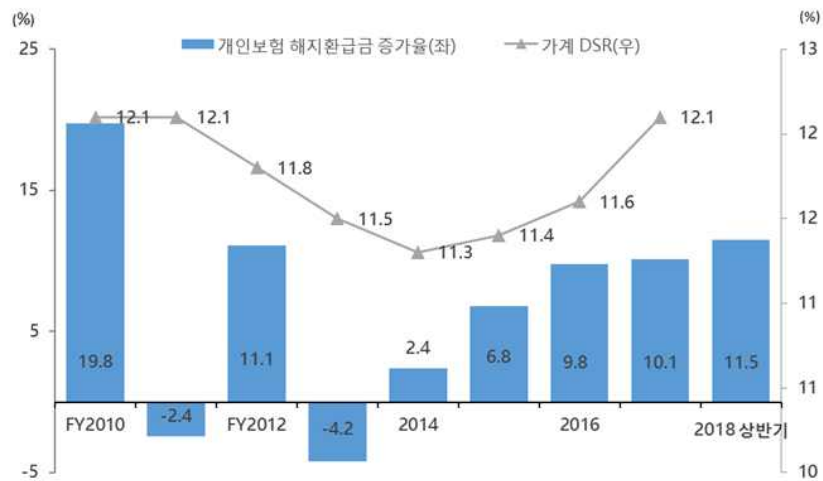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로운 해지율 지표를 고안하여 DSR과 종목별 신해지율 간의 관계를 살펴봄

- 이 경우 분모를 누적 보험료 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종목별 구분이 어렵고 자료의 가용성이 낮아 수입보험료를 대리변수로 선택함
- 개인보험의 경우 5년 내에 신규계약의 50% 이상 해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년간의 수입보험료를 합산함(2016년 생명보험 전체 61회차 유지율: 49.2%)

- 또한 6년간 수입보험료 1원당 해지환급금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나 일시적 가계의 부담으로 인한 해지가 아닌 지속적인 가계의 경제적 부담에 의한 해지로 볼 수 있음

〈그림 1〉 개인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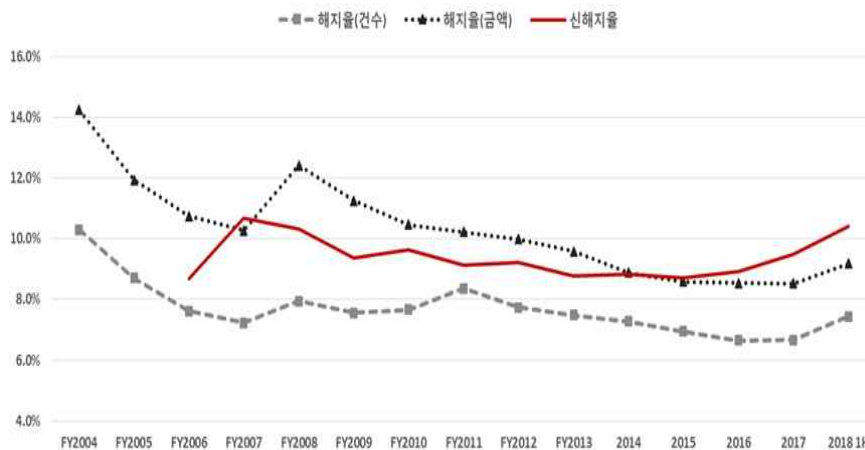
주: 해지환급금은 효력상실 환급금을 포함함
 자료: BIS, 업무보고서

- 전통적인 해지율과 계약금액 대신 계약 건수로 계산한 해지율, 신해지율 등 세 가지 해지율 지표와 DSR의 관계를 개인보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해지율이 DSR과 보다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그림 2〉의 붉은색 선인 신해지율과 다른 해지율 지표를 비교해보면 신해지율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2016년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신해지율이 수입보험료 1원에 대한 해지환급금으로 정규화되었기 때문이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7년에는 감소하기 때문임
- FY2006에서 2017년까지의 계약금액 기준 해지율, 계약 건수 기준 해지율, 신해지율과 DSR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본 결과 각각 0.225, 0.089, 0.368로 나타나 신해지율이 DSR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FY2009~2017년)의 상관계수는 각각 0.347, 0.369, 0.832로 금융위기 이후 신해지율과 DSR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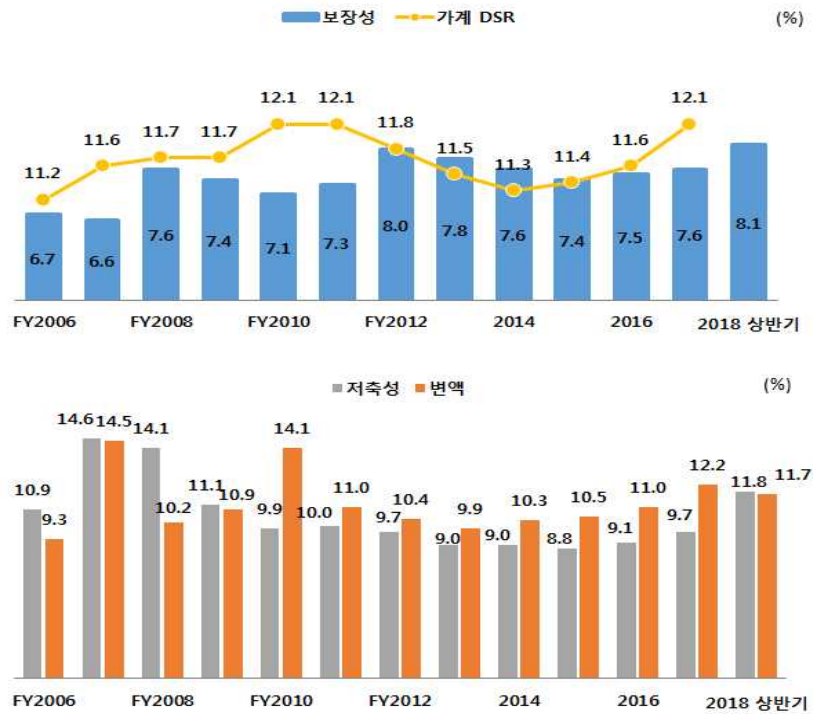
〈그림 2〉 개인보험 기준별 해지율 추이



주: FY2013 및 2018년 상반기 해지율은 연율회합
 자료: BIS, 업무보고서 및 저자의 계산

- 최근 4년간 보험종목별 신해지율을 보면, 변액보험의 신해지율이 가장 먼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저축성 보험이, 그 다음으로 보장성보험 신해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보장성보험의 신해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8년 상반기에 더욱 증가하여 전고점 (8.0%, FY2012)을 넘는 8.1%를 기록함
 - FY2009부터 2017년까지 DSR과 보장성, 저축성, 변액보험 신해지율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340, 0.535, 0.701로 저축성 및 변액보험 해지율과 DSR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생명보험 종목별 손해지율과 DSR



주: 1) FY2013 및 2018년 상반기 해지율은 연율화함
 2) DSR은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수치임
 자료: BIS, 업무보고서 및 저자의 계산

- 가계의 부채부담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의 지속적인 해지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계약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kiri](#)